

‘스바냐 1 장, ‘여호와와 그의 날에 있을 심판 1’

1.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(4-13 절)

1)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! (4-6 절)

①. 4 절: ‘바알’을 숭배하던 자들을 심판!

‘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’ (4 절)

- a) ‘바알’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으로, ‘주인’ 이란 의미를 가진, ‘농경과 가축, 다산’을 주관하는 ‘풍요의 신’이었음!
- b) ‘그마림’ 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, 대부분의 학자들은 ‘그마림’이 ‘바알의 제사장’을 비롯한 우상 숭배를 행하던 산당의 (대)제사장을 가리킨 말로 해석!

- 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이 바알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금새 타락하였고, 이런 바알 신앙은 유다가 멸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음!!
- ✓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박혀있는 바알 신앙부터 심판하실 것이라 선언하신 것!!
- ✓ 참고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,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영향력 끼치는 우상을 택하라면, 그것은 돈이요, 세상의 풍요가 아닐까?

②. 5 절: 하늘의 별들과 ‘말감’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!

‘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

- a)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는 ‘일월성신’ 숭배는 주로 바벨론 지역에서 활발하게 시작되어 가나안 땅으로 전달되었고,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하게 나타난 현상!!
-> 그런데 이런 ‘일월성신’ 숭배가 유다 왕 ‘므낫세’때 극심하게 행해졌다고 성경은 기록!
(왕하 21:3,5, 왕하 23:4,5, 렘 7:18, 렘 44:17-19)
- b) ‘말감’, 혹은 ‘물룩’은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신으로 그 뜻은 ‘저들의 왕’ 이란 의미!
-> ‘말감’ 숭배는 솔로몬 시대에 그의 후궁들에 의해서 유다로 스며들게 됨!
-> 참고로 솔로몬은 후궁들을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산당을 짓고, 자유롭게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해 줌!

③.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심판! (6 절)

‘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’

- a) ‘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’ => 배교자들!
- b) ‘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’ => 무신론자들!

- ✓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? =>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일한 민족+국가!!
=> 하나님은 저들에게만 율법(말씀)과 성전을 주셨고,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심!!
=>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가 되게 하셨음!!
=>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배교자들이 되었고,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의 음성을 구하지도 않는 무신론자들이 되었다는 것!
- ✓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,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는 무신론자들처럼 산다면,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자!

④.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‘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음을 알라’고 선포!! (7 절)

‘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이다. 이는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으므로,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’

- 이때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‘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’ + ‘청할 자들을 구별’하셨다 선언!
=> ‘희생’=‘제물’이란 의미로 멸망당할 유다를 의미!!
=> 청할 자들 =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려고 부르신 자들 곧 바벨론 민족을 의미!!

2) 우상 숭배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앞장섰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! (8-9 절)

①. 지도자들을 심판! (8 절)

‘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을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’

- ‘방백들, 왕자들,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’은 다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며 백성들을 이끄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과 유대 상류층자들!!
=> 저들은 백성들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, 진실과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, 도리어 국민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며 타락의 길로 인도하였음!!
=> 특별히 저들은 므낫세 왕의 실정이나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기에 바빴음!! (미 3:5,11)

②. 문턱을 뛰어 넘어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! (9 절)

‘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’

- 하나님을 버리고(속이고) 우상숭배를 행하던 유대 백성들의 죄를 비유로 지적하신 것!
* ‘문턱을 뛰어넘어’ => ‘하나님의 율법(말씀)을 뛰어 넘어란 의미!
* ‘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’ =>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!

3)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! (10-14 절)

①. ‘어문’과 ‘제 이구역’부터 울부짖게 될 것! (10 절)

“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, 제 이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,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”

- a) 우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10 개의 문들이 있음!
 - => 북쪽 왼편부터 => ‘옛문’, ‘어문’, ‘양문’
 - => 동쪽 윗편부터 => ‘함입갓문’, ‘동문’, ‘미문’, ‘수문’, ‘샘문’
 - => 남쪽 => ‘본문’을 지나 ‘실로암문’
 - => 서쪽 => ‘골짜기문’

- b) 그런데 하나님은 ‘어문’과 ‘제 2 구역’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이라 예언!
 - => 제 2 구역은 ‘어문(Fish gate)’은 ‘옛문’이 있는 예루살렘 북서쪽을 가리키는 지역!
 - => 이 지역 바로 밑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있음!!

②. 막데스 주민들이 슬피 울 것! (11 절)

‘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올라.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’

- ‘막데스’가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 성의 남쪽으로 가나안 백성들과의 상업과 무역을 관할하던 지역으로 해석!
=> 곧 막데스 주민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의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던 상공인들!
- 결국 11 절은 예루살렘 성의 제일 북쪽 가운데 문인 ‘어문’으로 밀고 들어온 적들이 제 2 구역을 진멸하는 것을 시작으로 왕궁과 성전을 초토화 시킨 후, 성의 가장 남쪽 상인들의 거쳐까지 진멸하는 장면을 미리 예언하신 것!! => 곧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전멸을 의미!!

③. 특별히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무시하던 자들을 친히 찾아 심판하실 것!

- 12-13 절!
‘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**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**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.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’

- ✓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교만함에 빠져 사는 자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 남는 것은 죄뿐이요,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!

2.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심판을 묘사! (14-18 절)

1)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진실로 가깝고 가깝다고 다시금 선언하며 회개를 촉구! (14 절)

2) 스바냐 선지자가 묘사하는 여호와와 그의 날은 어떤 모습인가?

- ①.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날! (14b)
- ②. 분노의 날, 환난과 고통의 날, 황폐와 패망의 날, 캄캄/어두운 날, 구름과 흑암의 날! (15)
- ③.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(16)
- ④. 피는 쏟아져서 티끌 같이 되며, 살은 분토 같이 되는 날! (17)
- ⑤. 은과 금으로 생명을 건지지 못할 날! (18a)
- ⑥. 결론적으로! 그 날은 ‘온 땅이 여호와와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 날’이요,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실 날! (18b)

✓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고 행해질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,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오늘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,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즉시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지혜자들 되고자 힘쓰자!

❖ 오늘 내용을 묵상하며 새로 깨닫거나 결단한 것이 있다면?

❖ 중보기도 제목나눔